국립중앙博, 올 10월 보존과학센터 개관

김재홍 관장, 1월 20일 '주요 업무계획' 발표

불교문화유산 등 복원·연구 강화
대형 CT 장비로 목조 연대 측정
약사삼존도 등 조선 미술 특별전
불교미술 10여 점 국내 최초 공개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국립중앙박물관이 올해 10월 보존과학센터를 개관해 문화유산의 과학적 보존과 관리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이는 주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불교문화유산의 정밀한 복원과 연구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1월 20일 관내 교육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은 개관 80주년이자, 용산 이전 20주년을 맞아 '공감의 박물관' '열린 박물관' '융합의 박물관' '공존의 박물관'을 4대 주요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우선 국립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박물관 보존과학센터가 문을 연다. 보존과학센터는 디지털 및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문화유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공간이다.

현 보존과학실 면적 대비 5배 확장해 건축 연면적 9,196㎡,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3D 스캔 및 디지털 형상복원실, 재질별 보존처리실, 분석실, 환경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개관과 함께 대형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를 구비해 불상 등 목조 문화유산의 연대를 측정하는 연구도 진행된다.

그간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 분야는 인력과 공간의 한계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보존처리만으로도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이번 보존과학센터 개관을 계기로 국·공·사립·대학 박물관과 국외 박물관 한국실 소장품 보존처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홍 관장은 "처음으로 보존과학실이 독립적인 공간을 갖게 됐다. 시대의 요구에 맞춘 다양한 시설을 강화하고, 1층 공간을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우리 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직접 눈으로 볼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국립중앙박물관장.

박물관은 올해 용산 개관 20주년 기념한 대규모 전시도 계획하고 있다.

올해 6월 열리는 '조선 전기 미술' 특별전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 전개된 미술 혁신과 변화를 조명하는 전시로, 약사삼존도·백자항아리·사시팔경도 등 3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국내외 76개 기관 소장품이 출품되며 이 중 불교 관련 작품은 100여 점이다. 일본 불화 등 10여 점은 국내 최초 공개되는 작품이다.

북한지역 불교 금석문에 대한 다각적 연구도 이뤄진다. 지난해 북한지역 불교 금석문 145건 171점의 판독 및 해제 연구에 이어 올해는 중앙박물관 소장 북한지역 승려비 탁본 80여 점을 활용한 심화 연구에 돌입한다. 승려비의 형태와 비면 구성의 특징에 집중해 시기별 승려비 형식과 형식 변천의 역사·문화적 배경을 연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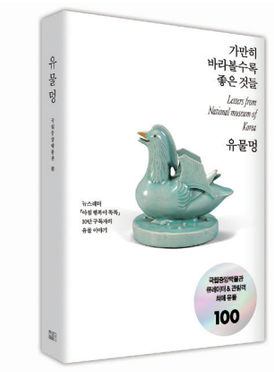
김재홍 관장은 "역사학, 고고학, 미술사학 연구 방법론을 융합한 심층 연구로, 창조적인 K-콘텐츠를 발굴·생산하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밖에도 올해 △특별전 '이순신'(11월~내년 3월) △마라톤 영웅 손기정 선생을 기리는 특별전 '두 발로 세계를 제패하다'(7월~12월), 심화 전시 '독립을 향해 함께 하다'(8월~10월) △최초의 이슬람 문화 상설전시인 '이슬람실'(11월~내년 11월) △특별전 '오세아니아: 대양의 예술'(4월~9월) △특별전 '인상주의' (11월~내년 3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일본미술의 재발견'(6월~8월/중앙박물관), '한국미술의 보물상자'(2월~4월/도쿄국립박물관) △덴버박물관 특별전 '달의 위상, 한국의 달항아리'(3월~6월) △독일 드레스덴박물관연합 '100가지 행복, 한국문화특별전'(3월~8월)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국외순회전-미국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11월~내년 2월), 시카고박물관(26년), 영국박물관(26년~27년) 등의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물멍·불멍 이은 최애유물 100점 '유물멍'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멍: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

반가사유상 · 토우 · 찬한 등
큐레이터 뒷이야기도 포함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이 큐레이터와 관람객이 선정한 '최애 유물' 100점을 수록해 기획 단행본 '유물멍: 가만히 바라볼수록 좋은 것들'〈사진〉을 발간했다.

'유물멍'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뉴스레터 '아침행복이 똑똑(2020년~2024년)'에서 시작됐다. 필진은 큐레이터와 각계각층 관람객들로, 이들이 유물을 바라보는 솔직하고 다양한 시선이 내용으로 담겼다. 구독자는 10만여 명에 이른다.

단행본 편집진은 총 400회에 걸쳐 발행된 뉴스레터 중 다채로운 조형미를 가진 유물과 개성 넘치는 글 100건을 선정해 책에 수록했다. 달항아리, 반가사유상, 금동대향로 등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물을 비롯해 토우, 찬합, 진묘수처럼 친근하고 소박한 유물도 만나볼 수 있다.

부록에는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가 쓴 유물 감상법과 전시 뒷이야기도 선보인다. '알고 보면 더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의 묘' '작은 세상 속 토우' '생각하는 불상, 반가사유상' '괘불이 우리 곁에 오기까지' 등 총 4편의 글에 전문가의 쉽고 친절한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행본은 각 유물을 한 페이지에 하나씩 배치하고 유물명, 시대, 출토지 등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유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유물'과 '멍'을 모티브로 그려낸 11점의 일러스트 스티커도 함께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유물멍'은 대중과 소통에 도전한 첫 번째 기획 단행본으로, 유물 감상의 문턱을 낮추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다"며 "통상 주제나 기법으로 구분하던 것을 유물의 빛깔별로 모아 독자에게 새로운 감상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

김내영 기자

한국 고승 생애 담은 비문 속 '이체자' 망라하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체자 서체 자전' 발간

'고대 · 고려 편' 이어 '조선 편'
비문엔 고승 일생 새겨져 있어
불교계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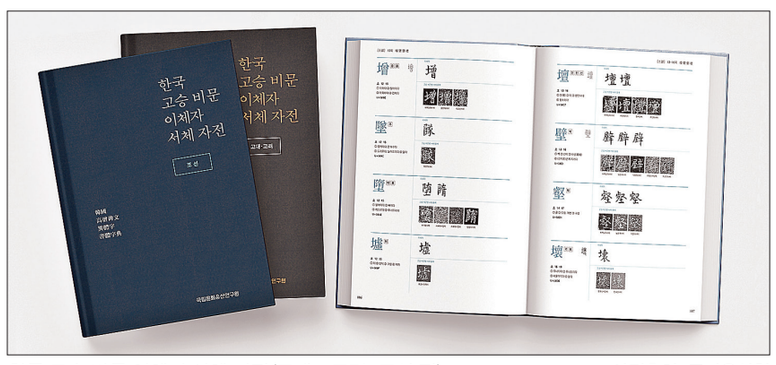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원장 임종덕)이 우리나라 고승들의 비석에 새겨진 이체자(異體字)를 정리해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서체 자전'을 발간했다. 2023년 발간된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서체 자전'의 첫 번째 책자 '고대·고려 편'에 이어, 두 번째 책자인 '조선 편'이다.

이체자는 흔히 정체자(正體字)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한자의 일부 획수를 줄여 간단히 한 약자(略字)나 관습적으로 한자의 자획을 약간 달리해 쓰는 속자(俗字) 등을 통틀어 가리킨다.

이런 이체자는 고승 비문뿐 아니라 묘지명(墓誌銘), 사리기(舍利器), 목간, 역사서 등에서 다양하게 확인된다. 이는 당시 사용된 문자의 경향성과 시대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사 자료로 기능을 한다.

예로부터 고승이 입적하면 왕실이나 제자들은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스님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는 일생과 제자·문도(門徒)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당시 불교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이번 자전에는 고승 비문에서 확인된 이체자를 서예로 작성해 수록했다. 비문별로 이체자의 서체 용례를 탁본이나 사진으로 삽입해 같은 글자지만 다양하게 표현된 서체를 비교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이체자에 대한 정체자는 음과 뜻, 부수, 총획수 등의 정보를 상세히 담았다.



한국 고승 비문 이체자 서체 자전(고대 · 고려, 조선 편) 사진출처=국가유산청

총 2권(고대·고려 편, 조선 편)의 자전에 수록된 고승 비문은 고대·고려시대 63건, 조선시대 160건이다. 이체자는 고대·고려시대 3076자, 조선시대 3683자이며, 서체 용례는 각각 7268건과 8050건이다.

김내영 기자

"사찰음식, 지속가능한 미식에 적합"

김유신 문화사업단 종무관
1월 16일, 사찰음식 재조명



김유신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종무관〈사진〉이 1월 16일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제97차 한국관광학회 서울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지속가능한 미식으로서 사찰음식의 가치를 학술적으로 조명했다.

'지속가능한 미식관광과 사찰음식의 전통과 가치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한 김유신 종무관은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30%가 폐기되고, 기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음식 자체가 아니라 음식에 담긴 의미,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먹을 것인지 등 음식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찰음식의 가치확산 방안으로 "모든 음식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소식(笑食)', 과식을 삼가고 건강을 유지할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는 '소식(小食)', 가능하면 육식을 삼가고 채식을 하는 '소식(蔬食)'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논문세션에서는 지난해 문화사업단 주최 '2024 템플스테이·사찰음식 논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논문을 비롯한 10여 편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내영 기자



대승불교 수행의 원형 탐구!
대승불교 유가행파의 수행론
역사상 대승불교 수행법을 최초로 정리한 유가행파의 수행론을, 인도찬술 유가행파 문헌과 최근의 연구 성과들도 반영하여 이론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규명하였다.
안성두 지음/신국판/무선/396쪽/값 25,000원

원효가 구축한 불교사상의 전모를 보다
분황원효불교사상사
세계적인 불교사상가이자 철학자 원효의 사상적 지형을 기반으로 하여, 구심으로서 원효와 원심으로서 동아시아 불교사상가 및 한국사상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였다.
고영섭 지음/신국판/양장/832쪽/값 50,000원

온 세대가 함께 읽는 〈소설 십우도〉
아이 찾는 아이
깨달음의 여정을 담은 십우도를 현시대 흐름에 맞게 재창조하여 철학적 의미와 문학적 재미,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살린 성장소설이자 SF/판타지 소설이다.
김태라 지음/사륙변형/양장/160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